



특 집

농축산 전문지 업계 분위기 적극 반영

- 절편녹용 수입 저지 예의 주시, 업계 반응 기사화 -

사슴관련 언론을 포함, 일반 농축산 전문지도 양록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절편녹용 수입 문제를 예의 주시하며 업계 분위기를 적극 반영, 기사화하고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WTO 수입개방 등 그 어느 해보다 거센 외풍에 휘말리고 있는 국내 농축산 현실에서 양록업계가 당면한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문제도 외산에 잠식당하고 있는 국내 농축산 현실의 축소판이라 할만하다.

축산신문 5월22일자를 보면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안돼”라는 제목하에 현재 뉴질랜드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의 절편녹용 수입협상에 대해 서술하고 본회의 대응 방안을 기사화했다. 이어 6월 1일자 신문에는 본회 김은성 회장이 로이 퍼그슨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면담한 내용을 기사화하며 국내 양록현황 및 수입시 업계 될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축산신문은 6월12일자 신문에서 “8월 양록업계 총궐기”라고 말하며 “양록농가

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절편녹용의 시장 개방 여부를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여론 수렴은 무시한 채 상대국과의 협상만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양록업계 원로들의 말을 기사화했다.

5월24일자 농축정보신문은 “절편녹용 수입허용요구 철회를”이라는 제목하에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 허용 요구를 밝히고 본회가 주장하는 ▲ 절편녹용 수입허용요구 철회, ▲ 뉴질랜드양록위원회 해체, ▲ 한국 녹용규정에 적합한 녹용 수출 등을 기사화했다.

농민신문은 6월1일자 신문에서 “뉴질랜드 절편녹용 개방 압력”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게재하며 뉴질랜드가 절편녹용 개방을 요구할 경우 뉴질랜드산 농축산물의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본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순록별이 녹용으로 부정 유통될 소지가 높다는 본회의 주장을 게재하며 업계가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농축유통신문의 경우 5월31일자 기사에서 “절편녹용 수입압력 즉각 중단하라”라는 타이틀로 본회 임원진이 뉴질랜드 대사관을 방문한 내용과 더불어 본회의 주장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게재했다.

“양록인들 단결된 모습 보여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6월14일자 농축정보신문에서는 8월 본회가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허용 압력에 강력 대응키 위해 대규모 양록인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기사화 하며 양록농가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절편 녹용 시장개방을 단결된 모습을 보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본회의 입장을 정리, 요약했다.

축산경제 6월 4일자 신문에서는 “절편 녹용 수입 압력 중단을”이라는 제목하에

본회가 주장하고 있는 수입압력 중단 요청과 향후 본회가 진행시킬 뉴질랜드산 녹용 및 모든 제품의 불매운동, 농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국영농신문에서도 6월18일자 5면에 절편녹용 수입압력 대응 간담회 개최 내용을 다루는 등 각종 농축산 전문지들이 현재의 업계 분위기를 적극 반영하며 절편녹용을 둘러싼 양록업계의 반응 및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본회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언론사에 알리는 등 부당한 절편녹용 수입 문제를 여론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민국양록**